

여름 옷 같아 입은 순천만국가정원 오색꽃 유혹

‘우주 체험’ 등 즐길거리 가미 개장 두 달 관람객 147만명 찾아 노을정원엔 안젤로니아, 스페이스 허브엔 라벤더로 여름 연출

개장 두 달간 147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여름을 맞아 다양한 꽃들로 새 옷을 입었다.

순천시는 여름을 맞아 이달부터 다채로운 화훼 연출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4월 ‘우주 체험’과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즐길 거리를 가미해 문을 연 뒤 두 달 만에 147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여름을 맞아서는 생동감 넘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여름꽃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맨드라미와 황화 코스모스, 라벤더 등 다양한 색깔이 꽃들이 여름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나타낸다.

노을정원과 나눔숲에는 안젤로니아를 심어 ‘마법의 숲’을 연상하도록 했다. 청보리가 심어진 자리에는 빨간 맨드라미를 피워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노을정원에는 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두다하우스’가 개장에 맞춰 새롭게 꾸며졌다. 나눔숲에서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정원 워케이션’을 만끽할 수 있다.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의 핵심 공간인 ‘스페이스 허브’는 보라색 라벤더로 꾸민 ‘라벤더 로드’로 거듭났다. 광활한 비오톱 습지에는 황화 코스모스밭을 조성해 여름의 풍요로움을 담았다. 스페이스 허브는 남문 앞 남는 공간과 배수로를 정비해 만든 공간으로, 전망대가 있는 5000평(1만6529㎡) 부지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내건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우주선이 착륙한 듯한 ‘스페이스 브릿지’와 우주인 ‘우주베어’와 모험을 떠나는 4D 입체 체험 ‘시크릿 어드벤처’,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만나는 공간, ‘수상 퍼레이드’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채롭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야경을 즐기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개



순천만국가정원 드림정원에서 여름꽃인 석죽과 한련화 등이 화려한 자태를 내뿜고 있다. <순천시 제공>

장을 하고 있다.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 야간권은 각각 5000원과 3500원, 2500원으로, 기존 관람료의 절반 값이다.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쉰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한 정원을 넘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며 “이번 여름에는 더욱더 다채로운 색상과 독특한

특수화종을 통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5곳 추가 24개 마을서 ‘100원 택시’ 달린다

울촌면 5개 마을 이달부터 운행

여수시 24개 마을에서 이달부터 ‘100원 택시’가 달린다.

여수시는 울촌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운행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달부터 총 24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0일 울촌면사무소에서 운송 사업자와 마을운영위원장 등은 ‘100원 택시 운영’ 협약을 맺었다.

운행 추가 지역은 울촌면의 차동, 송도·늑도, 수문포, 내동·후산, 외진 등 5개 마을이다.

지난해에는 삼일동 3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가 추가 운행되기도 했다.

‘100원 택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100원을 부담하면 마을회관에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 포함)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제도다. 지난해 여수 시민 3만7409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97%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

탑승자는 여수시가 발행한 100원 택시카드와



여수시와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난 30일 울촌면사무소에서 울촌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 운영’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현금 100원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내고 이용하면 된다.

사용 횟수는 마을별 주민 수 기준으로 30~300회까지 차등 부여된다.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요금은 보조금 예산으로 운송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다.

여수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는 교통 약자와 취약지역 교통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센터 한달간 할인

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할인캠페인’... 숲·녹차 족욕 체험 등 이용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방문객들이 2층 야외 족욕장에서 차를 우려낸 물에 족욕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한국관광공사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뽑힌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이달 한 달 동안 할인 행사를 벌인다.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할인캠페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선착순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 명소로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선정했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4년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센터에서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체험은 친환경 제품 만들기, 숲 체험, 녹차 족욕 체험 등이 있다.

모바일 앱 ‘여기어때’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레저·티켓 ‘숲 힐링 체험’을 검색한 뒤 구매하면 된다. 1인당 체험 비용은 3만원으로, 이 모바일 앱에서는 2만4000원 상당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전국 교육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교육 연수를 하고 있다. 이곳은 보성 특산물인 녹차를 이용한 명상과 다도 체험, 환경성질환 교육, 기초검진, 친환경 음식 만들기, 천연 염색 체험, 숲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7월 6·7일 제1회 보성군수배

보성군이 오는 7월6일부터 7일까지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1회 보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한다.

오는 7월6일에는 다운힐(비탈타기) 경기가, 7월7일 오전에는 제암산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린다. 다운힐경기는 3km 거리를 3~5분 사이에 내려오는 경기로,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제암산에서 일리산 임도를 경유, 임수저수지 둘레길을 지나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돌아오는 16km 코스에서 펼쳐진다. 순위는 엘리트는 2바퀴, 중급자와 초급자는 1바퀴 완주로 결정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비경쟁 대회인 도로라이딩

코스도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고급 자전거 등의 경품을 뽑을 수 있는 추첨권도 증정한다.

순위 경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누리집 또는 전화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역민 도로라이딩 코스는 현장 접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가족이 보성에서 보낼 시간이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마리안느 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 운영

광주·목포 학생 125명 봉사 체험

고흥군이 최근 목포와 광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목포 덕인고, 광주 동명고 학생 125명은 지난 29~30일 고흥 소독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체험했다.

고흥군은 소독도에서 43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삶을 널리 알리고 봉사·인간·박애 정신을 이어가고자 청소년 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중고교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6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야기로 듣는 마리안느 마가렛 생애 알아보기, 소독도 곳곳에 스며 있는 두 간호사의 흔적 느껴보기, 소독도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광양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5일 개소

오는 5일 광양 백운쇼핑센터 조각공원 옆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인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사진)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지어졌다.

지상 2층, 연면적 813.6㎡(247평)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건강상담실과 보건교육실, 사무실이 있고, 2층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실, 소규모 프로그램실, 주민참여실 등을 갖췄다. 이 공간에는 의료기기 25종과 운동장비 26종(재활 장비 4종 포함), 교육 장비 6종이 있다.

센터에는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혈압, 혈당, 체성분을 측정하고 기초 검사를 제공한다. 개인별 운동과 영양 상담을 하고 상시로 교육도 한다. 일부 시설은 지난 16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심뇌혈관·만성질환 예방 교육, 나이별 맞춤형 운동, 어린이 보건 교육, 영양상담실, 건강동아리 등 주민참여 행사도 운영된다.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재활보건의료도 연계·추진할 예정이다. 보



건소 이동과 접근성이 취약한 금호동 주민들을 찾아가 금연, 치매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그동안 보건기관이 없어 불편했던 금호동 주민들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마산면 상사·하사마을에서 ‘전기안전 서비스’를 진행한 구례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관계자, 주민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상사·하사마을 ‘전기안전 서비스’

100가구 안전점검·설비 개선

구례군은 마산면 상사·하사마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각 가구의 전기안전을 점검하고, 오래되고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최근 진행한 개선작업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지사장 소병환)와 구례군,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구례군 안전점검·설비 개선

구례군 마산면 상사·하사마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각 가구의 전기안전을 점검하고, 오래되고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최근 진행한 개선작업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지사장 소병환)와 구례군,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전기 사용 요령 등을 안내하고 안전 관련 불만 문제를 해결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전기안전공사의 활동 덕분에 구례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구례군의 전기안전 복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공사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